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 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적하고 의롭고 진실한 임원을 선출함에 있다.

2. 총회를 삼길 의롭고 신실한 임원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회 임원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1.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2. 임원 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호연계가 있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임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1. 총회임원 임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한

당지는 제출자의 입회하여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병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총회 임원 임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임후보 등록 가·부활 임후보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3. 총회임원 임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임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등록한 임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회본부에게 공지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임후보자의 기본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발령지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6. 총회임원 임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법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례위원회

의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례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8. 등록비는 총회장 임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임후보자는 500만원, 총무 임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임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8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임원 임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1. 총회임원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접대행위
2.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관공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4. 총회 사수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인터넷, 유언장을 통한 선거운동
6. 기타 선거운동
7. 선거의 규제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고일부터 정기총회 후 10일 까지 적용한다.

제5조 총회임원 임후보자의 제출서류: 각 1부씩

1. 임후보 신청서(총회임원)
2. 안수 증명서(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3. 선거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4.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5. 병환관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6. 임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7.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8. 총회임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9. 이력서 및 교단 내 경력 소개서
10. 임후보 소견서(A4 용지 1장 분량)
11. 가족관계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2011. 3. 7. 제정
2012. 3. 5. 일부 개정
2012. 4. 16. 일부 개정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2015. 3. 3. 일부 개정

1. 등록마감 : 2022. 8. 31(수) 17:00까지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4. 문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찬 목사
(010-3033-0073)
선거관리위원회 서 기 강태진 목사
(010-3511-9389)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 인 찬 서기 목사 강 태 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정 기 영 목사)

에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에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에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an@hanmail.net



(학장 김 상 웡 목사)

에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6면에서 이어짐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역할을 위반하였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드리즈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한국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을 한국 시민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시민으로 간주되어야 했다"며 "이 사람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된다는 것이 (국제법뿐만 아니라) 한국 법을 위반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N)의 그레그 스칼라키 사무총장도 조선일보에 "(북송은) 비합당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우리는 한국에서 법의 심판이 이뤄지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이인들은 관할 지역인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살인죄와 조국 반역죄로 조사받고 즉결 재판 직후 처형당했다. 이 소식통은 "조국반역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귀신 의사를 확인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귀신의 확인 정보는 북한이 한국 정부에서 얻은 것으로 미국 인권위의 보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북한과 한국 정부의 공모'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가 돌려보낸 이인 2명을 '조국반역죄'로 처형했다고 정통부 대북소식통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없다고 한 귀신 의사를 북한 당국은 있다고 본 것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은 미국의 해외인권위원회 랜로스 의장의 비난을 받고 있다.

6. 북한에 굴종적인 대북 정책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 마음을 잃어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길을 잃는다.

수전 솔더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미국의소리(VOA) 인터넷에서 "북한 정부는 국제 난민 협약 사법국에서 국제 의무를 자행했음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지중하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문 정부가 귀신 이인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해안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들은 '한국에 가면 우리도 북송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시작했고, 상당수는 한국행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부가 탈북자의 한국행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2019년 11월 문 정부의 탈북 이민 강제 북송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 현재까지 해상 귀순자는 0명으로 사라진 것이다. 2019년 해도 1,047명이었던 탈북자 수가 강제 북송 직후인 2020년 22명으로 줄었다. 2021년엔 68명으로 똑 떨어졌다. 2년 만에 20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한국으로 가도 언제 북송돼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강경은 과의 정상회담 소를 위해서 탈북자를 제물로 갖다 받지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신뢰를 잃어 실질적으로 통일을 막는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19년 11월 강경북 박민 B씨는 "그때 태국 이민국에 함께 있던 탈북민들이 저 사람들(귀신 이인) 북에

가면 무조건 죽는 데 강제로 보내는 건 너무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들 탈북민 정권이 북에 잘 보이라고 우리도 제물로 바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탈북 지원 활동가 D씨는 "강제 북송이 미친 경우로 많고 이미 중국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 중엔 한국행을 포기하고 미국·캐나다로 행선지를 바꾼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러한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민주 통일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가를 장악했다는 데 대하여 깊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문 정권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 김정은과 공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서열 씨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써 바다으로 추방한 안보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7. 국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위반한 반민주적인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가 규명해야 한다는 처벌받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선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는 헌법 33조에 따라 대법원·헌재·헌법재판회 다수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북한 선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린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귀신 이인들을 조사한 합동조사단 내부에서 이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경찰의 강제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잊힌' 이 사건의 사실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조단은 검정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문구를 보고서 초안에 포함했으나 최종본에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동료 16명을 죽인 용의범이라고 하지만 확정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근거로 살인 혐의에 대한 입증도 없이 사형을 북한으로 넘겼고, 이들이 타고 온 배를 필히 간직 하지도 않았다. 28년째 소독 작업까지 해서 복으로 보내졌다. 귀신 이인들은 정통부와 직할관 절차 아래 고향에 되돌아가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했다. 국제 인권 단체 연세대학교 "북 이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했다"며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미국 부시센터도 "이런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7월 14일(현지 시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신 이인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북송 과정을 막는 사태를 보고 있는 것이다."

2022년 8월 1일
살생을 꿈꾸는 나쁜행동

장기기증, 생명존중 교육사업 실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나눔 심어

(해사방위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석 목사, 이하 본부)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교육사업을 지속하며, 학령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장기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다.

본부는 2019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존중 교육 '모든 생물은 존중해'를 진행해 왔다. 이 교육을 통해 그동안 약 1만 7천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매년 지도교사와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여 온 교육인 만큼 올해는 참여교과 점수 시작 2년간 만에 생명이 마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에 올해는 교육현장을 크게 확대하여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14개 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되며, 이를 통해 2만 1천여 명의 초등학생들의 마음 속에 생명나눔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심겨줄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하학이 생명의 소중함과 장기기증 및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교육 도입에는 그래픽을 활용



하여 장기기증의 과정과 우리 몸 속 장기와 위치 및 역할 등을 재미있게 알려주고, 이어서 심장 박동는 팔과, 자신의 몸을 위한 건강한 습관 익히기 등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장기기증 뿐 아니라 자원봉사,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안내한 뒤, 실제 장기기증 사례를 만화 및 그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끝으로 학생

들은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들에게는 감사편지 및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응원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는다.

청소년 생명존중·나눔 교육인 생명사랑나눔운동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왕따,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건강한 자존감을 일깨워주는 교육이다.

예총연 선교협의회 주최 제6차 선교대회

세계선교와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총연(이사장 유영실, 대표회장 김용희, 이하 예총연) 선교협의회 주최 제6차 선교대회(장장: 장영희 목사)가 지난 4일(목) 여의도대교당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날 선교대회는 장영희 목사의 사회, 이봉희 목사(부회장) 기도, 전광훈 목사(부회장)의 성경봉독, 이석원 목사(합동보수연합)의 특송, 조영갑 목사의 설교, 김기용 목사(부회장)의 헌금기도, 강영희 목사

의 축도, 신민철 목사(지부의 오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 목사는 마 28:19-20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길'이라는 제목의 선교보고를 통해 20년 이상 필리핀 현지 사역에서 한 헌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불무함을 전하며 선교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필리핀 국내 구역에서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 많아 할 일들

이 너무나 많으며 필리핀 선교에 뜨거운 관심을 당부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김순일 목사(회장), 오영재 목사(부회장), 윤지현 목사(부회장) 인도로 스나리와 민족을 위해 △한국 6만여 교회와 30만 목회자와 100만 성도들을 위해 △세계선교와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해 △북한을 복음화하여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북통일이 속히 이뤄지도록 △종교개혁의 배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법 제정 반대 △예총연과 선교협의회, 기교회, 신학협의회, 2개 총회와 4개 단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질을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능력

소리 없이 계절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로 지치는지 여름도 남지 않고 서둘러 떠나고 있는 계절이 때로는 아쉬워하기도 한다.

시인 윤희영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정자 기를로 기록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시대(時代)는 방향을 잃고 신하게 병행(彷徨: civilizational desolation)이다.

한편 저자는 본사를 통해 절대적이며 거대한 권력을 담은 기독교 복음 전도의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그 기로로서 복음전도의 문화화(Culturalization of Evangelism)를 추구했다.

그리고 개척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사역 영역에 접근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거부했다. 동시에 기존의 '소개'와 '보여줌'이 아닌 '선배'와 '멘토' (가이드)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해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복음 전도는 단지 정보 제공자가 아닌 수직적의 경험(經驗) 상호작용되고 변형된 기독교문화화된 초초대의 구제(舊制)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전도의 정황(情狀)이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 그리고 문화선교의 장으로 이미 이동하였음을 밝혔다. 이른바 컨택츠의 내용 또한 비대면 상호교류(contact-

contact)에서 대면 상호교류로 사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함을 실제 사례로서 역설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앞서 실사한 비와 같이 '제1차 신조 신'을 통해 중점적이고 중심적인 복음전도의 내용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소로서 '관계망'(Interconnectedness)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본 저자는 지상명예(聖名)인 반도 명주(明主)인 복음전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함(Sustainability)을 필수 실현하였고 생명행진을 이어 COVID-19 행진(行進)의 신화를 이룩했다.

따라서 '팬데믹과 교회개혁'의 담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時代) 뉴노멀 교회는 존재하는가? 라는 화두에 회답하지 않으면서도 COVID-19로 모두가 신음하는 이 시대, 한국교회와 일련(一連)이 '호모 부스터'(Homo Booster),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is) 손잡지 않고 살아내는 생명의 열대(熱帶) 성도가 되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갈망하고 있다.

각설하고 일련(一連)이 부단(不단)한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능력(能力)으로 이루어져 행하고 계시는 최상의 거룩한 수단(手段)으로 복음은 세상(世間)의 신들이 아닌 것이다.

영혼을 소생(蘇生) (사면 19:7, 사면 23:3)하라는 최상의 함의(含義)로 한 사람의 영혼을 되찾아 위로 바꾸는 능력(能力) 1:16에 비유(比喩) 복음 안에서 신의 모든 종(宗)들(2:9)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현상(現象)이고 현상(現象)인 것이다.

수원(水原)교회 담임 홍종국 목사
성경신학대학원 조석환, PhD.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문화선교 TV 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27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031)692-6911, 010)3730-2573



논평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회 공동대표, 대변인, 한국교회문화연구소 이사장, 대석교회

기독교가 우리나라 희망입니다

교회와 세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설립은 민족 개화의 초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중추적인 교육, 의료, 복지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정부와 국호도 기독교로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시작된 대한민국에서 임시 의정대인 이승만 정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의 공언을 시작으로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기도하게 하였으며, 1983년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기도함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6.25 전쟁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재타피, 폐허가 된 땅에서 연미꽃을 찾고 아이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는 날 풀려살기를 바란 만큼 미국 그 자체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의해 핏줄이 나가기 되어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큰 부흥사 빌리그래함 목사의 반공 메시지가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들이대려 할 것을 막아준 것은 미국 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실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 기독교를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의 신앙은 소련 공산주의를 거의 사탄적인 악의 세력으로 간주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미국 빌리 그래함 목사였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을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보고 한국전쟁은 공산주의와 기독교 간의 전쟁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맥 아더 장군도 한국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했습니다.

만약 6.25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베트남식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것이고 GDP 세계 11위의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국 학자들이 한국이 전쟁 패배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 기독교라는 3대 이념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말할 것을 수년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했고 많은 외신들이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역사에서 기독교를 빼고 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때도 수감

을 정적을 통해 기독교가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주장들과 대놓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는 사람들과 정적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시라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세력이 대하여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외쳤던 동방의 이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신다는 성경 진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 사랑, 대한민국 사랑의 심지가 조금도 흔들릴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 122:6)

사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영화 고지전에 보면 거기에서 나온 밭 중에 가슴을 찌르는 게 있었다. ①나히들이 왜 전쟁에서 지는 줄 알아요? ②나히들이 왜 도망가기 바쁜 줄 알아요? ③왜 자유의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625 초년에 북한 정권이 국군포로들에게 한 말이다.

고지전에서 그 밭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 왜? 라는 말, 정치권이 적용해보면 왜 우리가 강행해야 하는지 알아요? 대답은 단순하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 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정몽교로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위가 너무나도 무리라고 두 개를 다 지키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지? 라는

개념이 없는 말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영국에서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이어받아 변용(變容)한 미국 민주주의를 이룬다(李承晩 1875-1965) 대통령을 따져 보면 자유민주주의이다.

미국에서는 랭킨의 2분 게티스버그 연설을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본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한 나라는 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을 말한다. 총 10개 문장 277단어로 2분 30초의 연설에서 랭킨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노예제도 종식이라는 대변혁을 이끌어 낸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약의 북한 독재정권과 마주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수십 년간 그들을 변화시키려 온 것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이렇듯 답할 뿐 그들은 어느 것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중국을 유적에 북한을 변화시켜 보려고 백근대통령은 2015년 중국의 전승절(淸節) 행사에 자유세계 지도자로서 유일하게 참석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북한 독재 정권으로 더욱 기승(氣盛)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가 강행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만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지켜야만 한다. 강행(強行)해서는 안 된다. 기술이전 운동장도 이제는 제대로 세팅해야 한다. 방한 잃은 유적(侯鳥)처럼 살아가는 안 된다.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안 된다. 방한을 잃은 것이 다. 대신, 지인 패배를 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처음과 달라져야만 한다. 처음에 국민들은 정치 초보를 좋아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다운 프로를 원하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다운 어법과 행동 말이다. 우위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온 국민이 주시하는 새 정부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다.

지금 윤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당장 당면한 문제인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다.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믿음직한 정부가 되면 적대감은 적당히 희미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력다툼의 지중산이 매우 불성실하다. 정당 대표가 당원권 정치 67명 이란사상 초유의 중장계를 받고 퇴출될 만큼 야수한다. 이 같은 당의 처분이 윤 대통령의 의중으로 오히려 지지율하락을 가속시켰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의의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정권을 맡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나에 달려 있고 우선적인 책임이다.

권력에 취해 마음이 완악하면 잘못을 모르고 충고와 비판을 수용하지 않지만 겸손하고 지혜로운 정부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개선할 줄 안다.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즉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 나는 내 죄과를 모르니 내 죄과를 찾아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중신(忠臣)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맡히라. 기쁘시리이다. 우솔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화되이다. 나의 죄과를 찾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라 하리라(시 139:23-24)

이성득심(意誠得心)이란 백성의 소리를 귀를 기울임으로써 민심을 얻는다는 뜻이다. 복인(福人) 내세우면 국민 마음은 멀어진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지지율이란 순순(順順)에 올라가기도 하고 반구(反口)로 떨어지는 것이다.

“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잠전 2:17)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압권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하고도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후 2:1-2)

초대시

전해수 // 은혜와전교회 권사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함이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 속에 숨겨놓은 비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시는 놀라운 신비는 누가 주신 것인가!

흙속에 생명을 불어 넣어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기이함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에게서 남자를 나게 하시는 이 신비로움은 누가 주신 것인가!

우주 만물 중 한 점에 불과한 존재가 만유의 주재이신 이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신 신묘막측한 이 은혜를 과연 누가 주신 것인가!



아침 시간엔 11장 25쪽, 유 38
“저가 있다가 하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게 내가 원치 아니하노!”
이 말씀 앞에 눈이 멀었다.
잠시 신비에 대해 생각하다 창세기 1장과
연결시킨 마음을 적어본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집 조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현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 ~ 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재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4림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연합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을 얻은 이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앙성)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의예사가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3세 이하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회의 인정하는 학력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결정

2. 제출서류(가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서공부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44문항 2매 이내)
- ⑥ 편입생만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 ① 원서접수 및 면접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입금 : 국민은행 061737-04-003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4림 8
(해당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권 부여
- ② 졸업 후 전도사 임명권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 문의(6시)가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4림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탄적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독재정권을 청산하는 운동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개인인권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7개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치, 학교,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유력한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원 소

- 발상종단, 성령충만, 영성양성, 영성양성, 영성양성
- 은 사상, 영성양성, 영성양성

● 원 소

- 원 소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4림 8 (영등포구 90-3)
- 사이버신학연구원 교학처 (9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 소

- 원 소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4림 8 (영등포구 90-3)
- 사이버신학연구원 교학처 (90)7205

● 원 소

- 원 소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4림 8 (영등포구 90-3)
- 사이버신학연구원 교학처 (90)7205

● 원 소

- 원 소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4림 8 (영등포구 90-3)
- 사이버신학연구원 교학처 (90)7205